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어보세요. 연말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엮드려 지난 한 해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향한 다짐과 기대를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1 - 한해 감사기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8:19)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365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며 매일의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걸어왔지만 주님께서 한 순간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며, 직장 and 사업터에서 일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시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2 - 회개와 용서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낱알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때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들을 용서해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 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마음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냈던 일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던 불신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연약함들도 용서해주옵소서. SNS와 미디어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것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3 - 새해 다짐기도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새로운 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해의 실패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배우자와는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도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마지막주 4 - 축복과 소망기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풍성히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에베소서 3:20)

한 해의 마지막 새벽예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새해를 향한 축복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평안과 화목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새해에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지역과 나라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갈등이 치유되며,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향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새벽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기도문과 신앙 자료는 [금난교회 홈페이지] (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